

GOOD NEIGHBOR MINISTRY

Vol. 104/ April ~ June, 2018

선한 이웃 선교회

www.goodneighbornj.org

할미꽃, 할비꽃

인생의 황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돌보기를 이용하여 찬양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매주 기쁨이 넘치는 그곳! ‘한소망 요양원’.

2년 전 처음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는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을지는 생각도 못 하였습니다. 5년, 3년 전 부모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마음이 적적하던 중에 교회(뉴저지 장로교회)에서 양로 사역에 관한 광고를 접하고 아내의 설득으로 한소망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황혼길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다른 모습들, 대부분 어르신은 ‘치매’라는 자신의 시간을 잃어만 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었습니다. 무표정한 모습과 서로에게 다소 공격적인 모습, 무엇보다도 자신의 나이를 잃어버린 현실 등이 처음에는 다소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찬양은 그저 봉사자들이 하는 것이고 본인들은 듣기만 하는 다소 지쳐만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봉사자들은 열심히 찬양하며 그분들을 섬기는 모습에 그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교회 사정이 있어 인도자의 자리를 맡아 달라는 정준임 집사님과 전도사님의 일방적인(?) 통화 후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난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모습과 냉랭한 예배 분위기,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들과 어떻게 만나고 대하여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그분들과는 마치 어린이를 대하듯, 그리고 부모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대하듯 한다는 것이 다소 이상할지 모르나 그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울동과 찬양 그리고 동요 등...,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던 분들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요즈음에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이 큰 기쁨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소망 요양원은 마치 한국의 관광버스와 같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세상과 단절된 9층에서의 생활로 인하여 특히 계절의 변화를 잘 느끼시지를 못하십니다. 함께 봉사하시는 집사님께서 계절을 느끼시라고 준비한 개나리와 꽃을 보시고 어린이와 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그 꽃을 서로 달라고 하시는 어린이와 같은 모습에 봉사자들의 얼굴은 함께 웃음꽃이 만발하기만 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인사를 하시고, 예배 후 돌아가는 우리 봉사자들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오셔서 배웅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님... 행여나 한 주라도 뵙지를 못하면 어디를 갔었는지 궁금해하시고 다음부터는 빠지지 말고 오라는 그 말씀, 2년 동안 한결같이 질문하시는 어디에 사는지, 결혼은 했는지,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이제는 농담으로 웃음꽃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소망에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꽃 중의 꽃인 ‘할미꽃, 할비꽃’입니다. 하늘나라에 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00평짜리 그곳! 인생의 황혼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 매주 화요일 봉사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맞아주시는 영원한 우리들의 꽃 중의 꽃인 ‘할미꽃, 할비꽃’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항상 감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

선한 이웃 선교회 미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 하리로다.”(시편 146:1-2)

「미국 노인 복지 홈」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양로원이라고 부르는 「넬싱홈」은 주로 육신의 기력이 쇠진하여 홀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처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거처하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양로원인 「넬싱홈」을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더불어 찬송을 함께 부르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한 이웃 선교회의 「평신도 양로원 선교사역」입니다.

Coming Events

6/16/2018(토) 7:30 PM
창립 19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Ridgewood, NJ

Good Neighbor Ministry

P.O. Box 110
Closter, NJ 07624
Tel. 201-759-5688
goodneighborministry.nj@gmail.com

정 중 은 집사

한소망 요양원/뉴저지 장로교회

The Sufficiency of His Grace

It has been four years since I started volunteering at the Sunrise of Cresskill nursing home as part of the Good Neighbor Ministry. I remember that I was grateful for a volunteer opportunity that was right in town and was easy to do, which was helping the residents turn the hymn book pages if they needed help. I also liked that I would be serving with a small group of ladies from my church. I enjoyed singing the traditional hymns that I had pleasant memories of singing at church as a youth. The whole first year, as I sang the beautiful and uplifting hymns along with the residents, I felt such peace and joy that oftentimes my eyes would fill up with tears. I saw how fragile and vulnerable most of the residents were in their wheelchairs. I had gone through a pretty big surgery the year prior and was still in the process of accepting what had happened. As I sang and watched the residents, I could not help but think back to how broken and weak I had felt. I was filled with gratitude to God for having carried me through that long and deep valley. In my physical weakness, He supplied me with spiritual strength and peace in abundance through fellow believers' prayers, praise songs, and His Word. I prayed that the residents, whom God reminded me were His sons and daughters, would see His light through our time with them and that they would sense the same kind of God's peace that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despite their present circumstances.

Around a year and a half ago, I began to fill in for our group leader occasionally because she had begun to work part-time and sometimes could not attend. It was a difficult and uncomfortable task for a quiet introvert, but I filled in comforting myself that it was not something I had to do regularly. Then it happened, our leader started a new job and had to always work on Tuesdays. Starting this past September, I began to lead the service every week. I was able to do it purely by God's grace and mercy, and for His glory. There were times in the beginning months when I felt sick to my stomach and did not want to go, but as long as I showed up God blessed me at each service through the words of the hymns and the scripture readings, the warm smiles and handshakes of the residents, and the beautiful music played by our dedicated musicians. I have felt His presence with us at each service as we praised together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t is an immense blessing and joy to share God's message of His love and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with the residents of Sunrise.

"For we are God's handiwork created in Christ Jesus

외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외로웠습니다
방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 어디에도 친구는 없었습니다
홀로 나무에 기대면
이따금씩 찾아오는 바람소리
자신의 얼굴이 보고 싶은 하나님
광야를 떠도는 흙 한 줌 들어
후우-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거울을 깨버리셨습니다
희미해져 볼 수 없는 얼굴
거울을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아침이면 나를 보고
형클어진 머리 빗으시고
밤이면 나를 비취
얼룩을 지우시고 싶어하는 예수님
주님 얼굴 비출 수 있는
맑은 거울 되게 하소서
외로우신 예수님

김 은자 권사/시인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Ephesians 2:10, NIV)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2 Corinthians 12:9, NIV)

Sue Lee
Sunrise of Cresskill

♯ ♪ ♫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음악회를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 ♯





THE 19TH
Anniversary

Good Neighbor Ministry
Benefit Concert

Saturday, June 16, 2018 at 7:30 PM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6 South Monroe St.
Ridgewood, NJ 07450

Music Director and Conductor:
Dongmin Kim

Featuring:
Hayan Kim, Soprano / Gloria Park, Mezzo-Soprano
Daniel Seog, Violin / David Kwak, Violin
Good Neighbor Ensemble

Sponsored By:
Bethany Church, Chodae Community Church,
Cornerstone Church, Hope Presbyterian Church,
Joy Christian Fellowship, The Presbyterian Church of New Jersey,
The River Church of New Jersey, The Korea Times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Brookdale Emerson



Sunrise of Cresskill





Photo Gallery



Oradell Health Ca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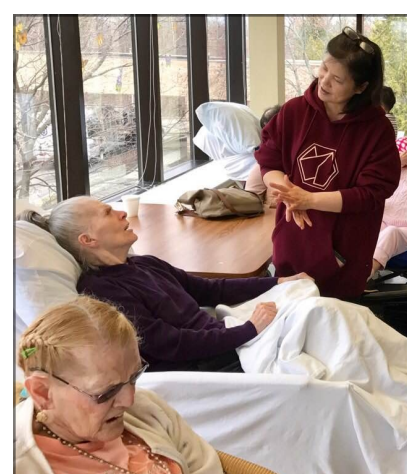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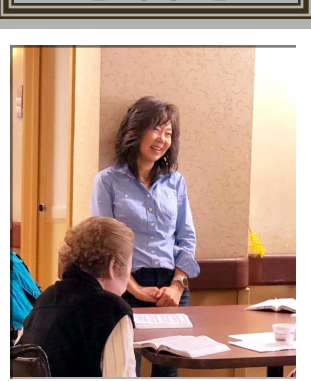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한소망 양로원



큰 바위 얼굴

중학교 시절 배웠던 국어 교과서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 뒷동산에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닮은 큰 인물이 그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전설이 오랫동안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리던 큰 인물은 그 마을에서 태어난 장군도 정치가도 부자도 아닌, 조용하게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었다는 작가 나다니엘 호손의 작품입니다.

저는 제가 철이 들면서부터 막연하게 진정한 ‘큰 바위 얼굴’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나의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나이도 이제는 상당히 들었고 몸도 마음도 많이 노년층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제가 김명신 권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93년도, 선한 이웃 선교회가 창립되기 훨씬 전인 때였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아들과 함께 제가 운영하고 있었던 치과 사무실에 환자로 오셨고, 그다음 만남은 2002년도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남 또한 아는 환자분과 함께 제 사무실에 들려 안부를 나눴고, 그리고 한참 뒤인 2009년에 양로원 찬양 사역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환자와 의사로서의 관계가 아닌 주님을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서 김명신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New Milford와 Oradell 양로원에서 함께 사역하며 그분의 삶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이어질수록 권사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큰 바위 얼굴’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도 양로원 사역을 묵묵히 하시는 모습을 보며 권사님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으며, 제 머릿속에서 가물거리며 기억되고 있던 ‘큰 바위 얼굴’과 김 권사님의 모습이 하나의 형상으로 조형되어가는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보니 뜻깊은 무엇인가를 남기신 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참으로 큰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권사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유산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Oradell Health Care Center 봉사자들과 함께

잠언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권사님께서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드시며 삶을 살아온 분임을 발견하며 이러한 권사님과 함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 선 구 장로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Oradell Health Care Center/Woodcrest Health Care Center

2018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생 모집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자로서 또 대표로서 1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모든 봉사자에게 선한 이웃의 참모습을 보여 주셨던 사랑하는 김명신 권사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 도움과 축복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뜻을 받들어 권사님의 자제들과 함께 저희 선교회는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재단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축복 통로로 사용되셨던 김명신 권사님의 교육 신념을 기리며 동시에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 선한 이웃 선교회 봉사자 및 자녀
- 2018년 6월 고교 졸업 예정자 이상(대학/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 미래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는 우수 인재

선발 인원: 3명 내외

지원 사항: 장학금 - 일 인당 \$1,500의 학습 보조비 지원

신청 기간: 4/1/2018~ 5/20/2018

신청 방법:

아래로 이메일을 주시면 필요한 제출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 Joon Chung: President of Good Neighbor Ministry
Email: goodneighborministry.nj@gmail.com
C. 201-759-5688
- Soo Jin Lee: Director of Good Neighbor Ensemble
Email: sjlee0124@gmail.com
C. 201-658-4537

최종 선발 결과 발표 및 장학금 수여:

- 최종 선발 결과 발표: 6/8/2018
 - 장학금 수여: 6/16/2018
- 창립 19주년 기념 선한 이웃 자선 음악회

선교회 소식

- ◆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가 6월 16일(토) 7:30 PM,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6 Monroe St., Ridgewood, NJ)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음악회 합창 연습 스케줄을 알려드립니다.
6/1(금) 합창연습 12:00-1:30 PM 간단한점심식사가준비되었습니다.
6/4(월) 합창연습 7:30-9:00 PM
6/11(월) 총 연 습 7:30-9:30 PM
- ◆ 2018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금(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신청이 5월 20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5월, Mother's Day를 맞이하여 25개의 양로원에서 선물 증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물 준비를 보조해 주신 초대교회와 뉴저지 장로교회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선물 구입을 도와주신 Hana Universal Trading, Inc.(모자), U & I Imports Inc.(목걸이), Lava Accessories(스카프)에게 감사드립니다.
- ◆ 봄방학 기간에도 찬양 사역에 나와 훌륭한 연주를 선사해준 앙상블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지난 4월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Paul Bae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 3월 30일 성금요일에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에서 귀한 연주를 해주신 김동민 집사님(Viola)에게 감사드립니다.
- ◆ 5월 11일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현수 선교사님과 연주해주신 김유식 집사님(Cello)에게 감사드립니다.
- ◆ 3월 29일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뉴저지 장로교회의 David Jang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 피아노 구입: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5월

선교 회원 동정

- ❖ 장례:
서연희 권사님의 작은 오빠 되시는 전성근님께서 3월 27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가족에게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 ❖ 선교:
• 정종은 집사/김연아 집사 - 3/12~4/1, 태국
• 박성길 선교사 - 3월, Dominican Republic/Haiti

후원해 주신 분들(2018년 3월 ~ 2018년 4월)

베다니 교회, Joy Church, 뉴저지 한인 장로교회

수입: \$2,300.00

지출: \$4,712.79

기도란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한 기도
- 새로 시작한 Brookdale Emerson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선한 이웃 앙상블 단원들을 위한 기도
-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를 위한 기도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권 사: 김학영, 박경옥, 서연희, 양승화, 이명옥

장 로: 박성길

집 사: 김진옥, 정준임, 정종은, 김금화, 조미경, 이미혜, 김은수, 최영준, Brenda Cho, Maria Kim, Jeannie Hwang, Paul Dunn, Amanda Bae, Susan Lee, Sue Lee, Hyunmee Kaylie Lee

전도사: 이승진, 이예리사 사모, 에스더 양, 설국환
Metro Church Member

† 선교사를 위하여

박성길 장로 (순회 선교사)

박문희 집사 (중국 선교)

† 건강을 위한 기도

Brenda Cho(관절), 김중현 집사(부친 건강 회복), 윤희주 집사(시아머님 어깨 수술), 김주현 집사(부군 어깨 수술), 최성아 집사(녹내장), 김학영 권사(어지럼증), 김진옥 집사(모친), 어혜숙 권사(건강 회복), Jeannie Hwang(부친 & 모친), 정은영 사모(건강 회복), 박경옥 권사(건강 회복) Sean Lee(건강 회복)

※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 선한 이웃 선교회 소식지: 주님 안에서의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원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선한 이웃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단체,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학 재단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Payable to: Good Neighbor Ministry
- Memo: Scholarship Awards
- Mail to: Good Neighbor Ministry
P. O. Box 110
Closter, NJ 07624

후원해 주신 분들

Joon Chung, Soon & Ester Chung, Paul Kang, Steven Kang, Ok Ja Kim, Hannah Lee, Robert W Lien, Heeju Yoon, 임미영, Kenny Yoon, 송희수, Jaebum Kim/Debra H Kim, 정구임
수입: \$2,000

총수입: \$22,600

총지출: \$9,000(장학금 수여)

선교회 정규 활동 일정

Day	Place	Volunteer
월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1 st Fl.)	서연희 권사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Oradell Health Care Center	김은수 집사 인도, Paul Dunn(말씀), 박송이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강병찬 집사(드럼)
	Sunrise of Old Tappan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송재현 목사(클라리넷), 정은영 사모(플루트)
화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이에리사 사모 인도, 김현정 집사 반주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Maria Kim 선생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Sunrise of Cresskill	Sue Lee 집사 인도, 강 희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Amanda Bae 집사/Susan Lee 집사 인도, Josiah Chung 목사(말씀),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한소망 요양원	정종은 집사 인도, 강현경 자매 반주
수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Norwood	Jeannie Hwang선생/설국환 전도사 인도, 한아정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정병찬 집사(드럼)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김금화 집사, 이명옥 권사 인도, 이연옥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Sunrise of Paramus	정준임 집사 인도, 에스더 양 전도사(말씀), 한자경 집사 반주
	Brookdale Emerson	조미경 집사 인도, Susana Kim 반주
목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aria Kim 선생 인도, 문주미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김진옥 집사 인도, 서울옥 집사 반주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Rockleigh	김금화 집사, Brenda 조 집사 인도, 이수지 집사, 최수현 집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은혜양로원	이명옥 권사 인도, 문행희 집사 반주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정준임 집사 인도, 이혜림 집사 반주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New Milford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금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Hyunmee Kaylie Lee 인도, 박수연 집사 반주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이미혜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Paul Dunn/설국환 전도사(말씀)
	CareOne at Valley, Westwood	Brenda 조 집사 인도, 최수현 집사/Soo Park 선생 반주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	서연희, 양승화 권사 / 최영준 집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한국 요양원 5동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양상블 단원 동정

1. All State Orchestra:
Julia Jeong, Jooun Lee, Justin Lee, Paul Jeong, Noel Cho
2. Daniel Seog:
Ensemble 212 Young Artist Competition Grand Prize
3. 신입단원:
Eugene Jang(Vn), Peter Kim(Vn), Alexander Ha(Va), Kate Lee(Va), Alex Ku(Vc), Wesley Kim(Vc), Michelle Jo(Fl)



양상블 특별 활동 행사 일정

- 5월 12일(토) 2:00 PM Norwood 은혜 양로원
 5월 13일(일) 11:00 PM Sunrise of Paramus
 5월 19일(토) 2:00 PM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Englewood
 6월 2일(토) 2:00 PM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Rockleigh
 6월 16일(토) 7:30 PM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19th Anniversary Benefit Concert
 8월 4일(토) 2:00 PM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8월 11일(토) 2:00 PM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8월 18일(토) 2:00PM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8월 25일(토) 2:00PM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New Milford

선교회 특별 활동 행사 일정

- 2018년 6월 16일(토) 7:30 PM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6 South Monroe St., Ridgewood, NJ 07450